



대형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 내 마음 내 생명 아닌 게 없어 공용 공식

### 자기의 진화를 생각해 보면 과거로부터의 내부모 내자식 내형제 내모습 내도량 아닌 게 없어

어려부터 또 한자리를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부처님 한마음 속에서 보살들의 이름이 다 나가는 것입니다. 천차만별로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데도 우리 마음 속에서, 한마음 속에서 용도에 따라서 관하면 때로는 지장이 돼 주고, 때로는 관음이 돼 주고 그렇게 화해서 찰나찰나 나뉘어 주십니다. 때로는 길잡이가 돼 주시고 때로는 해설사가 돼 주시고 때로는 보디가드도 돼 주신다고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 드렸죠. 즉 말하자면 내 뿌리인 불성 속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성이라고도 하지만 방편으로서 주장자라고도 하고, 자불(自佛)이라고도 합니다.

이 말을 왜 서두에 하느냐 하면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진행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방편상 길을 인도해 줘야만요 다음에 허공을 디딜 때도 서슴없이 디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부처님께서 '벗어나라, 벗어나라' 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중(中)세계에서 일체 만물만생의 모습은 다 천차만별이지만 그 모습 속은 모두 공존주머니입니다. 우리가 이 공존주머니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허공 길을 디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살아오던 관습과 의식 욕심 이런 것 때문이죠. 죽어도 자기 모습이 그대로 있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지옥고를 밟고 나갈래도 나갈 수가 없고 강을 건널래도 강을 건널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자기가 있다는 관념 때문에 말이예요. 이 점을 먼저 서두에 말하고 다음 얘기를 하렵니다.

우리가 이 중(中)세계에서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만 편안히 살겠습니까? 부딪치고 부딪치고, 수레가 돌아가면서 부딪치듯 살아 있으니까 이렇게 부딪치는 천차만별의 이치 속에서 바로 지혜도 생기고 물리도 터지고 하는 겁니다. 생명은 '불'이요, 부딪치면서 살아나가는 것은 '교'라고 했습니다. 불교라는

것은 진리의 언어지, 어떠한 불자들만 불교를 믿는다고 하는 국한된 마음이 아닙니다. 이 불교라는 자체는 끝이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먹지만 않는다면, 먹지 않고 살 수만 있다면 강도도 없을 거고, 사기도 없을 거고, 싸움도 없지 않을까요? 먹으니까 똥을 뉘어 하고 잠을 자야 합니다. 이 잠자고 먹고 똥누고 이러는 게 없다면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도 풀 아닌 일대사의 인연을 맺으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전에도 얘기 했지만 미생물에서부터 진화되고 형성되어서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면서 수억겁을 거쳐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 나은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부모 아닌 게 없고, 내 자식 아닌 게 없고, 내 도량 아닌 게 없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울렁이 적 생각을 못하고 개구리가 되었다고 큰소리치는데, 개구리라고 해봤자 울렁이 과장을 거쳤단 얘깁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퐁 안 두고 잠 안 자고 먹지 않는 세 가지들 안 할 수 있다면 그건 별천지죠. 부처님의 한도량이지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려면 지금부터 해나가는 이 마음공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한마음에서 관세음도 되고, 지장도 되고, 칠성도 되고, 주산신도 되고, 주해신도 되고, 보디가드도 되고, 길잡이도 되고, 의사도 되고, 아니 되는 거 없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그냥 발버둥을 치고 애를 쓰니 일이 되겠습니까. 나무는 자기 뿌리를 믿어야 공덕이 있는 거지, 자기 뿌리를 믿지 않고 형상이나 이름을 믿는다면 그것은 자기를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하나 벗어나서 천차만별의 중생을 다 건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일대사의 인연을 맺으셨다고 한 뜻이 바로 거거란 말입니다. 과거로부터 내 부모 아닌 게 없고 내 자식 아닌 게 없고 내 형제 아닌 게 없고 내 모습 아닌 게 없고 모두가 내 도량 아닌



그림 · 최추현

## 참자기는 수억겁을 거처온 소중한 보배 육신보다 정신계 한걸음이 진짜 큰 걸음

게 없다고 했죠. 이 말을 자세히 일러드려야만 되겠기에 이렇게 다시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세계에서 벗어나서 퐁 안 두고, 먹지 않고, 잠자지 않는 세계로 올라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체없는 내 마음의 처소가 될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체를 두고도 배움의 길에 있어서 만약 저 거리를 걸어갈 때 너무 빠른 속도로 간다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에, 속도가 너무 빠르면 보이지도 않고 바람만 실설 일어나죠. 이런 거 짐작해 보셨습니까? 또 체가 없는 나가 허공 길을 걸어갈 때는 가고 몸이 없이 갔다가 전체를 작게 만들어서 갖다 보기도 하고 또는 조그맣게 만들어서 갖다 놓을 수도 있죠. 가운데 들어가서 큰 것을 보려면 다 못 봅니다. 적어야 전체를 볼 수 있죠.

이 말을 여러분이 허공 길을 뛰어 넘을 수 있어야만 관세음보살이 되고, 지장보살이 된다는 얘깁니다. 내가 만약 계단

을 올라올 때 마음이 올라온다면 점프해서 그냥 단박에 올라올 수 있지만, 몸으로 올라간 한 계단 한 계단 밟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마음으로는 이 세상 삼천대천세계를 두루 할래도 할 수 있는 도리란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과 같이 들어나게 어느 모습 하나도 내 모습 아닌 게 없고 내 생명 아닌 게 없단 말입니다.

얼른 쉽게 말해서 어떠한 인연에 따라서 용건이 들어와도 나는 허공 길을 걸어야만 되겠죠. 찰나에 그 모습으로 화해서 나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짐승이 나를 칭했을 때 내 마음이 '짐승을 건져야겠다' 이리하면 내가 짐승이 돼야 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내 모습 아닌 게 하나도 없느니라' 했어요. 내 마음 아닌 게 없고 내 생명 아닌 게 없으니 공용 공식이다 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화해서 남을 건져줄 때도, 하다못해 물에서 노는 물고기 한

마릴 건져도 내가 화해서 그 고기로 들어가고 짐승에도 들어가고 사람에게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바로 건지는 겁니다. 방편으로 말을 하는 데도 어떻게 말을 해야 여러분이 잘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를 할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느라 고입니다.

부처님만 그러신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마음공부하는 분들에 한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전제를 하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점프를 해서 계단을 한 걸음에 올라올 수 있다면 같은 못 건너 가겠습니까? 강 속은 못 들어가겠습니까? 은산철벽은 못 뚫겠습니까? 삼라대천세계는 못 가겠습니까? 두루하죠. 덮고도 받치고도 남음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 길을 알려줘야 다음에 허공 길에 발을 떼어놓을 때 서슴없이 떼어놓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길을 지나가다가도 천도재를 한다'는 뜻은 뭐냐. 소나 말이나 돼지나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속을 다 아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바로 천도하는 겁니다. 그 상황에 상처받고 뭐하고 그런 게 다 무슨 필요가 있느냐 급한데. 그러나 타심통도도가 아니다 하는 것은 타심통을 안다면 즉시 실천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도입입니다. 실천이 없는 것은 도가 아닙니다. 오신통은 그릇을 만드는 것이고 실천은 그 그릇대로 담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무시하지 마시고 육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놓는 것 보다 이 정신계의 한 걸음이 진짜 큰 한 걸음이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참자기란 수억겁을 거처온 소중한 보배입니다. 그러니까 수억겁을 거쳐 온 주인공 즉 말하자면 주장자가 주인이고 몸은 그냥 시자일 것입니다. 몸은 시자일 뿐입니다.

가와서 악수를 할 때도 말입니다. 마음이 가니까 손이 덩달아 따라간 거지. 마음이 안 가는데 어떻게 손이 악수를 하려고 나갑니까? 마음이 움직여야 하는 것은 여러분 전체가 움직여야 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따라서 매여있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 메인 몸조차 공한 것입니다. 왜냐? 메인 몸이기 때문에 공했다고 하는 겁니다. 찰나찰나 물을 마셔도 내가 마셨단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구와 같은 이 몸 속에 한 개체도 생명체들이 얽히고 설켜고 많이 있음으로써 어떤 것이 먹는다고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먹은 게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냉정히 따지고 보면 그 증생들이 달라고 해서 나는 심부름한 한 것이기 때문에 아래로는 증생들의 심부름, 위로는 부처님의 시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래로 증생들을 모두 흡수해야 된다' 이라는 것은 조복을 해야 된다. 한마음으로 조복이 돼야 내가 마음 먹는 대로 한마음으로 따라준다는 겁니다. 그 의식들이 다 보살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부처님께서도 천차만별로 보살행을 하게끔 마음마다 자유권을 줬습니다. 자유권을 준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자유권을 가졌기 때문에 자유권이 있게끔 되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 '어휴! 내가 증생인데 어떻게 허공에 발을 떼어놓을 수가 있냐?' 이리지만 거기다가 말하고 관하고 이러한 게 그대로 내가 죽는 방법이고, 내가 힘이 없이 하는 방법이고, 풀 아닌 도리를 아는 방법이고, 구경계에 이르는 방법이고, 전부가 아니 하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중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여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중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중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생활속의 불교 184

## 거룩한 삶을 외면하고 쾌락만을 추구한다면

"도대체 사람으로 태어나서 억만의 부를 쌓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기껏해야 백년도 못사는 인생. 그렇게 집착하고 얽매이고 피땀 흘리며 구하던 것들도 일단 병들고 죽게 될 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억만의 부도 권력도 명예도, 청산 유수갈던 언변도, 그 많은 지식도 일단 몸을 여윌 때에 이르르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죽어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만 위대했던 아무개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한다면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그 무엇보다 참나와의 해후보다 나은 것은 없다."

불법은 우리에게 인생의 목표를 밝혀주고 길을 가르쳐 준다. 우리는 자신을 잘 알지 못한다. 잘 알지 못하기에 무엇을 근거로 살아야 하는지를, 왜 살아야 하는지를 잘 알지 못한다.

마음을 닦는 공부야말로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준다.

사람들은 사는데 급급해서 마음을 닦는 공부를 할 겨를이 없노라고 말한다.

그런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한분이라도 더 버는 게 낫고, 글이라도 한 줄 더 읽는 게 낫고, 사람들과 만나 일을 도모하는 게 더 유익하다고 한다.

혹은 당장 눈 앞에 탁월한 현실이 더 급한데 어느 째에 마음공부나 하고 있겠느냐고 한다. 마음닦는 공부를 무슨 부업쯤으로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바빠 살고 육신이 부서지도록 일 함도 없이 뛰지만 여전히 인생살이는 힘 없고 번민투성이 입을 먼치 못하고 있다. 스스로 행복에 겨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역시 그걸 놓칠까봐 전전긍긍하며 살기는 마찬가지이다.

한편 물질문명이 발달된 덕분에 예전과는 달리 주체하기 어려운 만큼 시간적인 여유를 갖게 된 사람들이 많다. 말하자면 이제 생존이라는 문제에서 풀려나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되돌아 볼 시간이 많아진 경우이다.

그러나 그들이 그 여분의 시간을 어디에, 무엇을 하는데 쓰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 대개의 경우 그들은 한순간의 즐거움을 향해 목 타는 사람이 물을 구하듯이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헤

매고 있다. 내가 남보란듯이 살아간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혹은 육신의 쾌락을 위해 부단히 장소를 찾고, 수단을 강구하고 방법을 구사한다. 그렇게 해서라도 여분의 시간을 다 쓰지 않으면 삶이 무의미한 것 같고 귀중한 인생을 낭비하는 것 같아 그것이 오히려 괴로움이 될까 두려워 하는 것이다. 웃고 즐길 일이 꼭 짜여져 있으면 그들은 삶이 제법 보람있다고 믿는다. 마음 닦는 공부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그럴 짬도 없다는 사람들이다.

어떤 수행자가 부처님께 여쭙었다.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이 세상에 거룩한 사람은 없다. 다만 거룩한 삶이 있을 뿐이다.'

어떤 삶을 거룩한 삶이라 하는가. 빠르게 보고 빠르게 생각하고 빠르게 노동하고... 여덟개의 바른 길을 걷는 삶이라는 말씀이다. 그 길은 바로 나 자신의 본질을 알아내고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길을 말한다. 육신의 쾌락이나 쫓고 제 잘난 맛이나 찾아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참사람의 참 삶을 이뤄가는 길이다.

부처님께서 거듭 말씀하셨다. '이 길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나중도 좋다. 누구나 이 길을 걸으면 참 삶의 맛을 볼 수 있다. 그것은 어느 것에도 비길 데가 없는 복락의 길이다.'

말하자면 그 길에 들어서기만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른바 깨달음을 추구하고 깨달음에 들어서서까지 만가지 맛과 만가지 향기를 느낄 수 있다는 말씀이다.

사람이면 누구라도 모름지기 만가지 맛을 내는 과일을 키우고 만가지 향을 풍기는 꽃을 키우는 농부이자 정원사가 되어야 한다. 그것만이 참 사람의 길이고 참 삶의 길인 것이다.

그럼에도 먹고 살기 급급해서 또는 즐기느라 짬이 없어서 마음 닦는 공부를 할 겨를이 없다 하겠는가. 거룩한 삶의 길을 외면하고 이 구멍뚫린 고기 자루를 위하여 시간을 허비해야 하겠는가.

협찬 : 오병진